

## 『원각경』의 25가지 보살의 선정

김홍미 원과

동국대학교

aryamati@gmail.com

I. 서론

II. 25가지 선정 수습의 근거

III.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의 특징

IV. 25가지 선정의 구체적 양상

V. 결론

### 요약문

『원각경』은 고려 전기부터 비교적 최근까지 천년 이상 한국에서 꾸준히 강의되거나 간행되어온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텍스트이다. 한국인에게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본 논문은 『원각경』에 가장 두드러지는 실천체계, 특히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라는 세 선정을 기준으로 체계화된 보살의 25가지 선정[定輪]을 분석한 것이다. 전체 12장의 구조에서 25가지 선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장은 ‘원각장’, ‘위덕자재장’, ‘변음장’이다. 앞의 두 장은 초보자가 세 선정에 맨 처음 접근하는 방법과 보살이 불국도를 장엄하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방법에 초점을 둔 것임에 비해, ‘변음장’은 실제 수습에서 25가지로 실천하는 모든 보살들의 양상을 설명한 것이다.

25가지 선정은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를 단독으로 수습하는 세 가지, 한 가지 원수(圓修), 21가지 복수(復修)를 합한 것이다. 그 수습의 근거는 미각(未覺)에 의거한 환의 힘이 고, 이 미각은 각(覺)과 상관관계에 있다. 즉 여래의 청정한 원각은 본디 수습할 것과 수습할 자가 없지만 ‘각-미각’의 상관관계 아래, 미각에 의거하여 환의 힘으로 수습할 때 차별화된 25가지 선정이라는 것이다.

실제수습에서 보살에게 나타난 25가지 선정은 작의 방법과 그것을 통해 얻어진 경안의 특징에 따라 다르다. 기본적으로 사마타는 적정의 힘이나 지혜에 의해 번뇌를 끊거나 변화를 일으키는 등으로, 삼마발제는 붓다의 힘에 의해 보살행을 실천하거나 변화의 힘에 의해 적정에 안주하는 등으로, 선나는 작용을 취하지 않음에 의해 환을 소멸하거나 적멸의 힘에 의해 정려에 안주하는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반면 셋을 원만하게 수습하는 원수는 원각에 대한 지혜로써 원만하게 일체에 합하여 모든 성(性)과 상(相)에서 각성을 여의지 않는 수습이다.

주제어

미각, 정륜,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 단수와 복수, 원수

## I. 서론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이하 『원각경』)으로 약칭)은 조선시대부터 비교적 최근까지 한국불교 학풍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강원의 이력과목(履歷科目)들 가운데 하나로서 『수능엄경』, 『대승기신론』, 『금강반야경』과 함께 사교과에 편제된 텍스트이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대다수 학생들이 배운 교과 과목이었던 만큼 원각 사상과 그 실천에 대한 가르침은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을 것이다. 종범의 연구에 따르면 『원각경』 등의 이력 과목이 정식 학과 과정에 포함된 강원 시스템은 벽송지엄(碧松智嚴, 1464-1534)에서부터 시작하여 서산 문하에서 확립된 것이다.<sup>1)</sup> 또한 조선 중기 자료 중에 사교과로 편제된 『원각경』에 대한 찬탄 계송이 청학(淸學, 1570-1650)의 『영월대사문집(詠月大師文集)』에 실려 있는데, “보살들이因地法行(因地法行)에 대해 세존께 묻자, 온전히 구경으로 이끌고 모두 다 번쩍 들어 날아오르게 하도다. 무명의 특성이 진여의 특성을 잠잠하게 하지만 번뇌의 뿌리는 해탈의

1) 종범, 「강원교육에 끼친 보조사상」, 『보조사상』 제3집(서울: 보조사상연구원, 1989), pp.75-87 참조.

근원에 없도다. 지혜와 어리석음은 뒤섞여 구별하지 못하고, 유행과 무성(無性)은 오묘하여 나누기 어렵다. 중생의 성불, 오래 전에 내려온 그것이고, 원각으로 집을 삼아 흰 구름위에 눕는다.”<sup>2)</sup>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텍스트에 대한 강의 기록은 고려 광종 19년(968) 혜거(惠居, 899-974) 국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불교총보』에 실린 ‘혜거국사비문’에 의하면 광종이 경운전(慶雲殿)에서 백좌회(百座會)를 개최하고 혜거를 초청하여 『원각경』을 설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sup>3)</sup> 또한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의 『문집』에도 ‘원각경 강의에 대한 발사[講圖覺經發辭]’가 있다.<sup>4)</sup> 따라서 이 텍스트에 대한 한국에서 첫 도입 기록은 알 수 없더라도 이미 고려 전기에 왕이 직접 설법을 요청한 기록이 있고 혜거와 대각이라는 두 국사가 강의할 정도로 주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게다가 의천의 원각 사상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주석서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다. 원각을 설명하기 위해 『기신론』의 체상용 삼대와 일심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이다.<sup>5)</sup>

특히 보조국사 지눌의 경우는 자신의 저술 전반에 걸쳐 『원각경』을 인용하여 경증으로 삼고 있다.<sup>6)</sup> 그 가운데 『권수정혜결사문(勸修定慧結社文)』에서 인

- 
- 2) 淸學, 『詠月大師文集』 “四集四教傳燈拈頌華嚴”, ‘圓覺’(『韓佛全』 제8책, p.234下17-21), “開士因行問世尊 全提究竟盡掀翻 無明性寂眞如性 煩惱根無解脫原 智慧愚癡渾不別 有情無性妙難分 衆生成佛其來久 圓覺爲家臥白雲”
  - 3) 허홍식, 「혜거국사의 생애와 행적」, 『한국사연구』52(서울: 한국사연구회, 1986), p.37, 39. 한편 김미경·강순애는 「원각경 판본의 계통과 서지적 특징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46집(수원, 한국서지학회, 2010)라는 그들의 논문 p.334에서 “한국에 전래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신라시대 승려인 혜거(惠居, 899-944)의 전기 가운데 『원각경』을 강의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시대에 이미 전래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혜거의 입적 년대는 944년이 아니라 974이며, 혜거 국사가 『원각경』을 설법한 것이 968년 광종 19년이므로 이를 토대로 『원각경』이 신라시대에 이미 전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4) 『大覺國師文集』 卷三『韓佛全』 제4책, pp.531上18-532上14). 정병삼 역주의 『정선 화엄 II』(서울: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2009), pp.304-310에 실려 있는 『대각국사문집』에 이에 대한 한글번역이 있다.
  - 5) 『大覺國師文集』 卷三『韓佛全』 제4책, p.531上24-中10)
  - 6) 『韓佛全』 제4책에 편집된 보조의 저술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원각경』은 『勸修定慧結社文』에서 다섯 군데(p.698下, p.699下, p.700中, p.701中, p.701下), 『牧牛子修心訣』에서 한 군데(p.708中), 『眞心直說』에서 일곱 군데(p.716中, p.717上, p.718上2-6, p.718上17-20, p.719下, p.720上, p.720中), 『看話決疑

용된 한 구절을 살펴보자. 지눌은 말법에 태어나 근기가 둔하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퇴굴상을 일으켜 정혜의 묘문은 어렵다고 수습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전부터 깨달은 자들은 모두 범부로부터 온 자들이고, 여러 경론에서 말세중생의 무루도 수습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각경』의 “말세의 모든 중생이 마음으로 허망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붓다가 이와 같은 사람은 현세에 곧바로 보살이라고 설할 것이다.”<sup>7)</sup>라는 경증을 제시하고 있다.

여말선초의 『원각경』 관련 텍스트의 현황은 대각국사 의천이 1086년 송에서 귀국하여 집록한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教藏總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sup>8)</sup> 총 18개 텍스트에서 종밀의 저서가 그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서 『원각경』의 본격적 유통이 규봉 종밀(780-841)의 영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이후 고려와 조선에서 유통된 『원각경』에 대한 정보는 대장경 판본 계통을 통해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판각 중에 가장 이른 고려 고종 28년(1241) 대장도감 판본부터 조선 후기 고종 20년(1883) 간행분까지 이 텍스트에 대한 지속적 간행 기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간행된 지역도 전국에 두루 걸쳐 있고 그 간행이 이루어진 13곳의 사찰 종파도 조계종뿐만 아니라 여섯 개의 다른 계열까지 포함되어 있다.<sup>9)</sup> 즉 『원각경』은 고려 광종 19년(968)부터 고종 20년(1883)까지 900년 이상 심지어 역불 정책이 시행될 때조차도 한국에서 꾸준히 강의되거나 간행되어온 것으로서 어떤 특정한 시기에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종파의 사상이나 목적을 위해 유통된 텍스트가 아닌 일종의 스

論』에서 한 군데(p.733中),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에서 한 군데(p.761上) 인용되어 있다.

- 7) 『권수정혜결사문』(『韓佛全』 제4책, p.698下11-20)
- 8) 義天錄, 『新編諸宗教藏總錄』 卷一(『韓佛全』 제4책, p.685上9-中4). 여기에서 소개된 『원각경』의 주석서는 宗密의 저술로서 『大疏』 六卷(或三卷), 『大疏科』 二卷(或一卷), 『大鈔』 二十六卷(或十三卷), 『略疏』 四卷(或二卷), 『略疏科』 二卷, 『略鈔』 十二卷(或六卷), 『道場修證儀』 十八卷, 『禮懺略本』 四卷, 『道場六時禮』 一卷이 있고, 淨源의 『略本修證儀』 一卷 賢志의 『疏』 二卷, 大軀의 『覺性樂』 二卷, 德素의 『玄議』 八卷, 法圓의 『解』 二卷, 善聰의 『裴序助洪記』 一卷, 希仲의 『裴序鈔』 一卷(科附), 道璘의 『地位章』 一卷과 『三觀扶宗息非』 一卷이다.
- 9) 고려와 조선의 『원각경』의 유통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김미경·강순애, 「원각경 판본의 계통과 서지적 특징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46집(수원, 한국서지학회, 2010), pp.335-356을 참고하라.

테디셀러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텍스트에 나타난 사상과 실천이 한국인에게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측면에서 이를 통해 한국불교에 함축된 사상이나 실천체계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일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각경』에 나타난 다양한 개념과 그 원각을 실현하는 실천체계로서 원각수순에 대해 친착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한편 이 경의 전체 구조가 문수사리보살 등 12명 보살들의 질문과 붓다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원각수순에 대한 12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sup>10)</sup> 이 12가지 방법들 가운데 이 텍스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실천체계는 사마타(奢摩他, śamatha), 삼마발제(三摩鉢提, samāpatti), 선나(禪那, dhyāna)라고 하는 세 가지 선정 혹은 관법이다. 이것들에 대해 무려 ‘원각장(圓覺章)’, ‘위덕자재장(威德自在章)’, ‘변음장(辯音章)’이라는 세 장에서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원각장’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맨 처음 접근 방편으로, ‘위덕자재장’에서는 보살이 불국토의 장엄하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방편으로서, ‘변음장’에서는 실제 수행에서 25가지로 수습하는 보살들의 양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각수순의 측면에서 25가지로 체계화된 보살의 선정에 대해 분석하는 연구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변음장’에서 체계화된 25가지 보살의 선정에 주목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수순’이 초보적 수준에서 무언가를 따라간다는 일차적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10) 각 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원각수순 방식을 살펴보면 ‘문수장’에서는 인지법행, ‘보현장’에서는 다섯 단계의 원리(遠離), ‘보안장’에서는 사마타에 의한 정념(正念), ‘금강장장’에서는 삼혹(三惑)을 끊는 것, ‘미륵장’에서는 발원에 의지한 수행으로 장애를 점차로 없애는 것, ‘청정혜장’에서는 멸(滅)과 미멸(未滅)이라는 허망한 공용(功用)에서 차별화된 네 가지 수순각성, ‘위덕자재장’에서는 정각심으로써 원각에 친근 수순하는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라는 방편들, ‘변음장’에서는 25가지 선정들, ‘정제업장’에서는 네 가지 상(想)을 제거하는 것, ‘보각장’에서는 선지식을 섬기는 것, ‘원각장’에서는 안거법과 초수방편, ‘현선수장’에서는 경전을 올바르게 수지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 II. 25가지 선정 수습의 근거

이 텍스트에서 25가지 선정은 여덟 번째 변음 보살과 붓다의 문답에 나타난 것으로서 선정의 수레바퀴[定輪]라고 서술된다. 종밀의 주석에서 ‘수레바퀴(輪)’에 대해 미혹의 장애를 파괴하고 바른 지혜로 굴러간다<sup>11)</sup>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으므로 선정의 수레바퀴란 무명이라는 미혹의 장애를 파괴하고 바른 지혜로 굴러가는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라는 보살의 선정이라 할 수 있다. ‘변음장’에서 이것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첫째는 이 셋을 단독으로 수습하는 단수이고, 둘째는 이 셋 가운데 두 개 이상 결합하여 수습하는 복수이고, 셋째는 원만하게 수습하는 원수이다. 그러면 변음보살의 질문을 살펴보자.

“일체 보살은 이러한 모든 방편에 대해 원각문에서 몇 가지로 수습해야 합니까? 원컨대 대중과 말세 중생을 위해 그 방편을 개시하시어 실상을 깨닫게 해 주소서.<sup>12)</sup>”

여기에서 ‘이러한 모든 방편’은 바로 앞의 ‘위덕자재장’에서 설명된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를 가리킨다. 또한 ‘원각문’은 이어지는 붓다의 대답에서 “미각에 의거하여[依於未覺]”라고 설명되는 것으로서 ‘청정혜장’의 “만약 보살들이 청정한 원각을 깨달아 정각심으로써<sup>13)</sup>”라는 내용과 대응된다. 이를테면 일체 보살이 원각문에서 수습해야 할 모든 방편은 적정경안, 대비경안, 적멸경안을 통해 획득하는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이고, 미각에 의거하여 이 방편들을 몇 가지로 수습해야 하는지 질문한 것이다. 물론 보살들과 말세중생이 이것들을

11) 宗密述, 『大方廣圓覺修多羅義經略疏註』(이하 『略疏註』로 약칭) 卷下一(『大正藏』39, p.560b21), “輪者摧輓義 能摧惑障 令正智轉 故名為輪”

12) 『圓覺經』(『大正藏』17, p.918a26), “此諸方便 一切菩薩 於圓覺門 有幾修習 願為大眾及末世眾生 方便開示 令悟實相”

13) 『圓覺經』(『大正藏』17, p.917c15, c20, c27-28), “若諸菩薩 悟淨圓覺 以淨覺心”

수습해야 하는 목적은 질문에서 나타나듯이 실상을 깨닫기 위해서이다. 이런 측면에서 실상이란 원각자성은 무자성이기 때문에 여러 자성에 따라 25가지 선정을 수습하는 보살이 있을 뿐, 취할 것도 증득할 것도 없다는 의미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며, 곧바로 ‘청정혜장’의 “보살이든 중생이든 모두 환에 의해 변화된 것이기 때문에 실상에서는 실로 보살과 중생이 없다”는 단언과 맞닿아 있다.

하지만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에 대한 설명이라면 앞선 ‘위덕자재장’의 답변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왜 재차 변음보살이 질문해야 하는가? 종밀은 이에 대해 ‘위덕자재장’에서 밝힌 것은 세 가지 관법에 대한 행상뿐이고, 그밖에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라는 수습 대상에 대해 보살들의 실제 수습에서 한 명이 모두를 갖추어야 하는지, 세 명이 각각 한 가지씩 실천해야 하는지, 그 세 가지를 전후로 수습하는 것인지, 동시에 하는 것인지, 순서에 따라 하는 것인지, 순서를 초월한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sup>14)</sup> 재차 질문한 것이라 주석하고 있다.

이러한 변음보살의 질문에 대한 붓다의 답변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먼저 25가지 선정 수습이 가능한 근거를 밝히고, 다음으로 그 25가지라는 구체적 양상을 설명하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근기에 어떤 것이 적절한지를 선택하는 방법을 설한 것이다.

붓다의 설명에 따르면 여기에서 25가지 선정 수습이 가능한 근거는 한마디로 미각(未覺)이다. 붓다가 “일체 여래의 청정한 원각은 본디 수습과 수습하는 자 없지만 일체 보살과 말세 중생이 미각(未覺)에 의거하여 환(幻)의 힘으로 수습할 때 문득 25가지 청정한 정륜이 있다.<sup>15)</sup>”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여래의 청정한 원각은 무자성으로 특징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수습의 대상과 주체가 본래 없음에도 미각에 의거하여 환의 힘으로 그 수습이 가능하

14) 宗密述, 『略疏註』卷下(『大正藏』39, p.560b4-6), “前說三觀 雖行相分明 未審諸菩薩所修 為復一人具三 為三人各一 為前後 為同時 為依次 為超次”

15) 『圓覺經』(『大正藏』17, p.918b4-5), “一切如來圓覺清淨 本無修習及修習者 一切菩薩及末世衆生 依於未覺 幻力修習 爾時便有二十五種清淨定輪”

다는 뜻이고 그 수습 과정에서 나타난 차별적 점차가 25가지 선정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체 중생의 갖가지 환화가 모두 원각묘심에서 일어난다는 전제 아래, 환으로써 환을 수습한다는 ‘보현장’의 여환삼매와 이 내용이 그 맥을 같이한다는 것이다. 또한 마치 두 나무를 서로 비벼 불을 피울 적에 불이 붙으면 나무도 모두 타고 재도 날아가고 연기도 사라지는 것처럼 환으로써 환을 수습하는 ‘보현장’의 수습<sup>16)</sup>이 곧바로 ‘변음장’의 ‘미각에 의거하여 환의 힘으로 수습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비록 허공 꽃이 명백하게 환화일지라도 그 환화 역시 허공에 의거하여 일어난 것이며, 이 수습을 통해 환(幻)인 허공 꽃을 소멸하더라도 그 소멸의 끝에 단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허공의 특성이 드러날 뿐 [不動]<sup>17)</sup>인 것처럼, 미각에 의거하여 환의 힘으로 수습할 때 그 차별적 점차로서 25가지 선정이 보살에게 체험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각’이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힌트는 ‘청정혜장’의 계송에서 찾을 수 있는데, 즉 “원만한 보리성(菩提性)은 취할 것도 없고 현증할 것도 없으며 보살과 중생도 없지만 각(覺)과 미각일 때에 점차적 차별이 있다.<sup>18)</sup>”는 구절이다. 기본적으로 이 계송은 본문의 “일체 환에 의해 변화된 것들을 아직 제거하고 소멸할 수 없어서 미혹되고 전도된 중생은 멸(滅)과 미멸(未滅)이라는 허망한 공용(功用)에 대해 문득 차별을 나타낸다<sup>19)</sup>”라는 산문에 대응된 것이다. 그 때문에 ‘변음장’의 미각의 뜻은 ‘청정혜장’의 미각, 미멸의 문맥과 함께 분석해야 그 정확한 취지가 드러날 수 있다.

대응하는 ‘청정혜장’의 내용에서 보듯이 미각은 미멸과 동의어로서 범부, 삼현보살, 십지보살이 아직 소멸하지 못한 장애를 의미한다. 물론 ‘미멸=미각’의 구조는 ‘멸=각’과 상관관계 속에서 차별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범부의 ‘미멸=미각’은 ‘청정혜졌다’는 인식으로서 장애이다. 여기에서 범부란

16) 『圓覺經』(『大正藏』17, p.914a19-20), “譬如鑽火兩木相因 火出木盡灰飛煙滅 以幻修幻亦復如是”

17) 『圓覺經』(『大正藏』17, p.914a10-13), “一切衆生種種幻化 皆生如來圓覺妙心 猶如空花從空而有 幻花雖滅 空性不壞 衆生幻心 還依幻滅 諸幻盡滅 覺心不動”

18) 『圓覺經』(『大正藏』17, p.917b17-19), “圓滿菩提性 無取亦無證 無苦薩衆生 覺與未覺時 漸次有差別”

19) 『圓覺經』(『大正藏』17, p.917a14-15), “衆生迷倒 未能除滅一切幻化 於滅未滅妄功用中 便顯差別”



무시이래 ‘자아가 있다’고 망상하고 ‘자아’를 애착하여 일찍이 스스로 생각생각 그 생멸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미움과 애착을 일으켜 오욕(五欲)에서 탐착하는 자이다. 이 범부에게 장애가 생기는 과정은 청정한 원각성을 깨우치게 하는 선우(善友)의 교령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교령에 입각하여 그 생멸을 분명하게 밝힌 범부에게 곧바로 ‘이 일어남을 자성으로 하는 것은 스스로 피곤하고 번민스러운 것이다’는 인식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인식과 함께 피곤과 번민이 영원히 끊어져 법계 청정을 획득한 다음에 생긴 장애가 바로 미각인 것이다. 이를테면 범부의 ‘멸=각’은 법계 청정이고, ‘미멸=미각’은 청정해졌다는 인식인 것이다. 이보다 상위 단계인 삼현보살의 ‘멸=각’은 범부의 미각으로서 법계 청정에 대한 인식[解]의 장애를 단멸한 것이며, ‘미멸=미각’은 깨달음을 보려는 머뭇, 즉 깨달음에 대한 집착이다. 그리고 이보다 상위 단계인 십지보살의 ‘멸=각’은 비춤이 있다고 하든지 깨달음이 있다고 하든지 모두 장애라고 인식하는 보살이 언제나 깨달음에도 머물려고 하지 않으므로 비추는 대상과 비추는 주체가 동시에 적멸한 상태이고, ‘미멸=미각’은 일체 여래가 갖가지 언설로 보살들에게 개시한 것이 손가락일 뿐 필경 달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다.<sup>20)</sup>

한마디로 ‘청정혜장’의 ‘멸=각’과 ‘미멸=미각’의 구조가 그대로 ‘변음장’의 미각에 적용된 것이라는 뜻이다. 그것에 의거하여 환의 힘으로 수습할 때 그 차별로 드러난 것이 25가지 선정이다. 그러므로 25가지 차별들로서 선정들은 허망한 공용일 것이며, 이 허망한 공용들은 ‘청정혜장’의 설명처럼, 각과 미각의 상관관계가 전제되어 있다. 그런 까닭에 중밀은 “수습이 없는 것에서의 수습[無修之修]”<sup>21)</sup>이 전체적 대의라고 주석하며, 기화(己和, 1376-1433)는 “수습이 없는 것에서 수습이고 차별이 없는 것에서 차별<sup>22)</sup>”이라 해설하고 있다.

20) 『圓覺經』(『大正藏』17, p.917a17-b8)

21) 宗密述, 『略疏註』卷下一(『大正藏』39, p.560b19), “正明諸輪大意。無修之修”

22) 釋己和解,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說誼』卷中(『韓佛全』제7책, p.155中8-9)

### III.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의 특징

25가지 선정들 가운데 그것이 단수이든 복수이든 원수이든 실제 수습에서 보살에게 적용되는 양상은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가 지니는 기본적 작의(作意) 방법과 그것을 통해 얻어지는 독특한 특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사마타는 ‘samatha’에 대한 한문 음역으로서 산란하지 않음과 심일경성(心一境性)이라는 뜻이다. 단 하나의 대상에 마음과 마음작용을 균등하고 정밀하게 집중하는 작의이기 때문이다. 이 작의 과정에서 불선법(不善法)들이 저절로 가라앉고 그치게 되는데, 이 특징으로부터 사마타는 지(止), 적정, 고요함 등으로 해석된다. 삼마발제는 ‘samāpatti’의 한문 음역으로서 등지(等至), 정(定)이라는 의미이다. 주로 상(想, samjñā)의 소멸과 관련된 공무변처 등의 4무색정을 가리키는 술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삼마발제에 기본적으로 언어를 통한 개념화가 포함된 뚜렷한 인식, 즉 4무색정의 상에 이전의 거친 상을 소멸하는 체계가 수반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단계가 올라갈수록 거친 상을 초월함으로써 언어를 통해 관념화된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거친 상이 소멸되는 것으로 그 특징이 나타난다.<sup>23)</sup> 이런 차원에서 삼마발제는 ‘위덕자재장’에서 근(根)·경(境)·식(識)이 환화임을 인식하고서 온갖 환을 일으켜 환을 제거하고 환을 변화하여 환의 무리를 개오하게 하는 대비경안으로 재구성된다.<sup>24)</sup>

선나는 ‘dhyāna(禪)’<sup>25)</sup>의 한문 음역으로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색계4선(禪, dhyāna)을 지칭한다. 하지만 초기불전에서 이것의 구체적 내용이 팔정도 체계의 바른 삼매<sup>26)</sup>와 동일하기 때문에 위의 ‘심일경성’이란 의미를

23) 김홍미, 『『원각경』의 3가지 보살의 선정』, 『불교학보』 72(서울: 불교문화연구원, 2015), p.97, p.100-101.

24) 『圓覺經』(『大正藏』17, p.917c20-23), “知覺心性及與根塵皆因幻化 即起諸幻以除幻者 變化諸幻而開幻眾 由起幻故便能內發大悲輕安”

25) 붓다의 정각과 관련된 이 용어 대해서는 강성용, 『초선의 경험과 회상 그리고 서술: 붓다 일대기에서 초선에 대한 서술이 갖는 특징과 그 의미들』, 『인도철학』 23(서울: 인도철학회, 2007), pp.118-119의 각주 1, 각주5를 참조하라.

26) DN II, p.313.

지닌 사마타와 같은 의미로 파악될 수도 있다.<sup>27)</sup> 그럼에도 이 텍스트에서는 거울에 영상이 비추는 것과 같은 적정이라는 사마타의 특징과 달리, 그릇 속에서 나는 쇠북 소리와 같은 적멸이라는 특징으로 서술되며, ‘원각장’의 초수방편에서는 ‘prajānāti(분명하게 안다)’라는 동사에 대응되는 ‘요지(了知)’라는 반야의 작용으로 나타난다. 이를테면 바른 삼매의 동의어로서 선나가 아니라 선정과 지혜가 균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선나(dhyāna)’만 바라밀이라고 한다<sup>28)</sup>는 『대지도론』의 관점을 채택하여 삼마발제로 재구성하고 있다는 뜻이다.<sup>29)</sup>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변음장’ 뿐 아니라 ‘원각장’과 ‘위덕자재장’에서도 원각 수순의 측면에서 제시된 것이다. ‘원각장’에서 이것들은 말세 중생을 위한 초수 방편으로 설명되며, 사마타의 경우 그 첫 작의가 지극한 적정(寂靜)을 붙잡는 것으로, 삼마발제의 경우는 시방 세계의 여래들과 보살들을忆상(憶想)하는 것으로, 선나의 경우는 수문(數門)을 붙잡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와 같이 첫 작의에서부터 이 세 가지를 수습하는 구체적 방식은 다르다. 하지만 실제 수습에 들어가면 원각의 편만성에 도달이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향해 그 작의하는 대상을 점차 확장하는 방향으로 전개시킨다. 다시 말하면 사마타는 첫 적정이 한 몸으로부터 한 세계에 이르는 방향으로, 삼마발제는 갖가지 문으로 시방의 여래와 세계, 일체 보살을忆상하는 쪽으로, 선나는 분명한 알아차림을 두루하게 미쳐서(周遍) 항상 네 가지 위 의(威儀)에서 분별된 정념에 의한 숫자를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방향으로 확장시켜간다는 것이다. 그 확장 결과, 보살은 원각의 편만성을 수순하게 되는데 그 순간, 사마타 수행자는 어떤 세계의 한 중생이 일으키는 한 생각도 다 알 수 있게 되고, 삼마발제 수행자는 대비심에 의존하여 저절로 혼숙되어 보살중성이나 불중성을 이루게 되며, 선나 수행자는 백 천세계의 한 빗방울까지도 마치 자신의 눈앞에 보인 물건처럼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된다.<sup>30)</sup>

27) MN I, p.301.13, “cittassa ekaggaṭā ayaṃ samādhī.”

28) 『대지도론』에서는 선정을 나타내는 용어가 매우 다양함에도 ‘dhyāna(선나)’만 바라밀과 결합할 수 있는 이유로서 이 구절이 제시되어 있다.(『大正藏』 25, p.185b13-19)

29) 김홍미, 앞의 논문, pp.105-106.

이에 비해 ‘위덕자재장’에서 이것들은 보살들이 불국토를 장엄하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방편으로 제시된 것이다. 또한 그 어떤 것이든지 모두 청정한 원각을 개오한 보살들이 정각심을 토대로 수습한 것이고, 내적으로 일으킨 경안에 의해 획득된 것이다. 이 가운데 사마타를 성취하게 하는 적정경안은 적정을 붙잡아 망념을 막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적정에 의한 지혜를 통해 몸과 마음에 대한 객진 번뇌가 영원히 소멸하는 순간 얻어지는 것이고, 삼마발제를 성취하게 하는 대비경안은 근(根)·경(境)·식(識)이 모두 환화로 인한 것임을 인식한 보살이 곧바로 갖가지 환을 일으켜 환을 제거하고 환을 변화하여 환의 무리를 개오하게 하는 순간 얻어지는 것이다. 선나를 성취하게 하는 적멸경안은 환화이든 적정상이든 붙잡지 않는 보살이 몸과 마음이 모두 장애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서 모든 장애에 의거하지 않는 지각없는 밝음[明]으로써 장애든 무장애이든 경계를 영원히 초과하게 됨에 따라 얻어지며, 그 결과 비록 수용하는 세계, 몸, 마음이 티끌 영역[塵域]에 있더라도 그릇 속에 쇠북 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번뇌와 열반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이 셋은 작의 방법과 그것을 통해 얻어진 경안의 특징에 따라 보살들에게 다르게 체험된다. 그 체험에서 적정경안에 의한 사마타는 거울 속에 영상이 비친 것처럼 모든 여래의 마음이 그 가운데 현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대비경안에 의한 삼마발제는 흙이 싹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보살들의 묘행(妙行)이 원만해지는 것으로 인식되며, 적멸경안에 의한 선나는 묘각(妙覺)에 수순하는 적멸의 경계로서 자타의 몸과 마음으로 미칠 수 없는 대상이 되거나 중생과 수명도 모두 뜬 관념상[浮想]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sup>31)</sup>

이렇게 ‘원각장’과 ‘위덕자재장’에서 설명된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는 그 초수방편, 작의 방법, 성취되는 경안의 특징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이 차이는 보살들의 실제 수습을 다루고 있는 ‘변음장’에서 그 결할 지점을 알려 주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다시 말하면 적정을 붙잡음으로 시작하는 사마타의 적정에

30) 『圓覺經』(『大正藏』17, p.921b2-16)

31) 『圓覺經』(『大正藏』17, pp.917c15-918a4)

의한 적정경안, 역상을 일으킴으로 시작하는 삼마발제의 환을 일으킴에 의한 대비경안, 수문을 붙잡는 것으로 시작하는 선나의 걸림없는 적멸경안이 단수로 혹은 복수로 혹은 원수로 수습될 때 보살에게 그 선정만 지니는 독특한 특징적 차이로 체험된다는 것이다.

#### IV. 25가지 선정의 구체적 양상

‘변음장’에서 서술된 25가지 선정의 수레바퀴에 대한 전체 구조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sup>32)</sup>

單修 (3)	① 單修사마타	② 單修삼마발제	③ 單修선나
復修 (21)	④ 先修사마타 後修삼마발제	⑪ 先修삼마발제 後修사마타	⑱ 先修선나 後修사마타
	⑤ 先修사마타 後修선나	⑫ 先修삼마발제 後修선나	⑲ 先修선나 後修삼마발제
	⑥ 先修사마타 中修삼마발제 後修선나	⑬ 先修삼마발제 中修사마타 後修선나	⑳ 先修선나 中修사마타 後修삼마발제
	⑦ 先修사마타 中修선나 後修삼마발제	⑭ 先修삼마발제 中修선나 後修사마타	㉑ 先修선나 中修삼마발제 後修사마타
	⑧ 先修사마타 齊修삼마발제·선나	⑮ 先修삼마발제 齊修사마타·선나	㉒ 先修선나 齊修사마타·삼마발제
	⑨ 齊修사마타·삼마발제 後修선나	⑯ 齊修삼마발제·사마타 後修선나	㉓ 齊修선나·사마타 後修삼마발제
	⑩ 齊修사마타·선나 後修삼마발제	⑰ 齊修삼마발제·선나 後修사마타	㉔ 齊修선나·삼마발제 後修사마타
圓修 (1)	㉕ 원각에 대한 지혜로써 원만하게 일체에 합하여 모든 성(性)과 상(相)에서 각성(覺性)을 여의지 않음		

여기에서 보면 25가지 선정은 세 가지 단수, 21가지 복수, 한 가지 원수를 합

32) 『圓覺經』(『大正藏』17, pp.918b6-919a14). 이 도표에서 한자를 한글 독음으로 바꾸지 않은 것은 번역할 때보다 한자로 표기된 것이 훨씬 선후의 차제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한편 이 표와 다른 ‘변음장’의 25론에 대한 도표와 설명은 기화의 『說誼』 卷中(『韓佛全』 제7책, pp.158上-159中)에 나타나는데, 이것을 李智冠의 『韓國佛教所依經典研究』(합천: 해인사, 1973(c1969) p.275에서도 볼 수 있다.

친 것이다. 이 체계에서 우선적으로 주목할 부분은 복수의 운용에서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가 그 심천(深淺)이 처음부터 아예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이 체계에서는 선정 그 자체보다 수습하는 보살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실제 수습에서 선정들이 결합된다면 비록 문장상으로는 선정들의 독특한 차별상만 서술되더라도 그 계기는 보살의 발원이나 공덕의 차별 때문일 수도 있다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종밀은 자신의 저술인 『약소주(略疏註)』에서 ① 징혼식용관(澄渾息用觀), ② 포정자도관(庖丁恣刀觀), ③ 정음출애관(楞音出礙觀), ④ 운주겸제관(運舟兼濟觀), ⑤ 담해징공관(湛海澄空觀), ⑥ 수라삼목관(首羅三目觀), ⑦ 삼점제수관(三點齊修觀), ⑧ 품자단쌍관(品字單雙觀), ⑨ 독족쌍두관(獨足雙頭觀), ⑩ 과락화부관(果落華敷觀), ⑪ 선무후문관(先武後文觀), ⑫ 공성퇴직관(功成退職觀), ⑬ 환사해술관(幻師解術觀), ⑭ 신훈은해관(神龍隱海觀), ⑮ 용수통진관(龍樹通眞觀), ⑯ 상나시상관(商那示相觀), ⑰ 대통안묵관(大通晏默觀), ⑱ 보명공해관(寶明空海觀), ⑲ 허공묘용관(虛空妙用觀), ⑳ 순야정신관(舜若呈神觀), ㉑ 음광귀정관(飲光歸定觀), ㉒ 다보정통관(多寶呈通觀), ㉓ 하방등화관(下方騰化觀), ㉔ 제심함용관(帝心含變觀), ㉕ 여의원수관(如意圓修觀)이라는 유각(惟慤)의 주석을 인용하여 그 명칭을 부여하면서 모두 ‘정륜(定輪)’이 아닌 ‘관(觀)’이라는 단어로 바꾸고 있다.<sup>33)</sup>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위의 25가지 분류에서 복수 중 세 가지를 순서대로 수습하는 ⑥, ⑦, ⑬, ⑭, ⑳, ㉑과 셋을 원만하게 수습하는 원수의 구별이 자칫 모호해질수 있다는 점이다. 위 표에서 보듯이 복수는 21가지로서 ④-㉑이다. 이것을 재차 두 가지로 분류하면 첫째는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를 둘 혹은 셋으로 결합하여 순서대로 수습하는 12가지이고, 둘째는 가지런히 서로 도와 함께 수습하는 제수(齊修)가 포함되고 그 전후에 또 다른 한 개를 결합하는 형태

33) 宗密述, 『略疏註』卷下一(『大正藏』39, pp.561a6-562b5). ‘변음장’의 25가지 정륜과 대응하는 종밀의 주석에 대한 도표는 조운호, 「종밀의 『원각경』 해석에 보이는 제사상의 수용」, 『법한철학』 45(광주: 법한철학회, 2007), p.83를 참조하라.

로서 아홉 가지이다. 무엇보다도 원수와 복수는 달라야 하므로 최소한 세 가지를 순서대로 수습하는 것은 원수가 아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제수와 다른 한 개를 결합하는 형태도 원수가 아니어야 할 것이다. 이것들을 배제하고 나면 복수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태, 즉 셋을 동시에 수습하거나 셋 모두를 제수하는 것이 원수일 수 있다는 가설이 성립된다.

종밀은 이에 대해 ⑥은 마혜수라의 얼굴 위에 세 눈과 같고, ⑦은 원이삼점과 같은 것이며, ⑬은 마술사가 변화를 일으켜 술법을 만들고서 나중에 고요함으로 돌아가 적정을 체로 삼기 때문에 술법이 풀리는 것과 같고, ⑭는 신령스러운 용이 펼쳐진 구름 위에 비를 내리고 바다로 잠기는 것처럼 환을 일으켜 중생을 교화하다가 체로 돌아가 적정에 들어가는 것이며, ⑳에서 허공과 같은 신령스러운 마음이 변화를 일으키는 묘용은 곧 순야라는 허공신이 햇빛을 만나 잠시 나타나는 것과 같고, ㉑은 음광[대가섭] 존자가 먼저 체를 증득하고 다음으로 신통을 일으킨 이후 선정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sup>34)</sup>고 주석하고 있다. 종밀의 이러한 비유적 표현을 고려하면 여기에서 다시 셋 모두의 제수가 배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수는 셋을 동시에 수습하는 방식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아마도 적정의 힘, 변화의 힘, 적멸의 힘을 써서 수습하는 복수와 달리, 원수는 원각에 대한 지혜를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일 것이다. 그러면 25가지 선정 가운데 단수를 살펴보자.<sup>35)</sup>

- ① 단독으로 사마타를 수습하는 보살들: 오직 지극한 적정을 붙잡을 뿐, 적정의 힘으로 말미암아 번뇌를 영원히 끊고서 구경(究竟)을 성취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문득 열반에 들어가는 자들.
- ② 단독으로 삼마발제를 수습하는 보살들: 오직 환과 같음[如幻]만 관찰할 뿐, 붓다의 힘에 의해 세계를 변화하여 갖가지 [대비의] 작용으로 보살의 청정하고 오묘한 행을 갖추어 실천하면서 [원각이라는] 다라니문에서 적념(寂念)과 정혜(靜慧)를 잃지 않는 자들.

34) 宗密述, 『略疏註』卷下(『大正藏』39, p.561a24-b1, p.561c6-12, p.562a9-14)

35) 『圓覺經』(『大正藏』17, p.918b6-21)

③ 단독으로 선나를 수습하는 보살들: 오직 모든 환(幻)을 소멸할 뿐, 작용을 취하지도 않음에 의해 홀로 번뇌를 끊으려 하고 번뇌의 끊어짐이 다해 문득 실상(實相)을 증득하는 자들.

여기에서 보면 단수는 수습 도중에 다른 선정과 결합하지 않고, 오직 첫 착의 대상에 대해 단독으로 수습한다는 의미이다. 이를테면 사마타는 오직 지극한 적정을 붙잡을 뿐이고, 삼마발제는 오직 환과 같음을 관찰할 뿐이며, 선나는 오직 모든 환을 소멸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보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원각에 수순하게 되는데, 사마타의 경우는 적정의 힘에 의해 번뇌를 영원히 끊고서 구경을 성취하여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도 문득 열반에 들어가고, 삼마발제의 경우는 붓다의 힘에 의해 세계를 변화하여 갖가지 대비의 작용으로 청정하고 오묘한 보살행을 갖추어 실천하는 동안 다라니문<sup>36)</sup>에서 적념과 정혜를 잃지 않고, 선나의 경우는 적정을 붙잡거나 환과 같음을 관찰하는 두 작용을 취하지 않고 홀로 번뇌를 끊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번뇌가 끊어지면 문득 실상을 증득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단수를 통해 나타난 사마타의 특징은 적정의 힘이고, 삼마발제는 붓다들의 힘이며, 선나는 작용을 취하지 않음이다. 또한 사마타와 선나는 번뇌를 끊는다는 방식으로, 삼마발제에는 보살행을 실천하면서 다라니에서 적념과 정혜를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으로, 삼마발제와 선나는 환에 대해 관찰하거나 소멸하는 것으로 보살들에게 체험되고 있다. 물론 이것들 역시 미각에 의거하여 환의 힘으로 수습하는 측면이므로 실제로는 이승과 동일한 단계를 체험한 보살, 십행품에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보살, 십지에 들어가 실상을 본 보살<sup>37)</sup> 등의 여러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36) ‘문수장’의 “無上法王有大陀羅尼門 名為圓覺”(『大正藏』17, p.913b19)이라는 서술과 이 구문의 다라니는 동일한 취지일 것이다.

37) 通潤 述,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近釋』 卷五(『卍續藏』 제10책, p.532a19-b3). 통윤(通潤, 1565-1624)은 명대 현수법장(賢首法藏, 643-712)을 계승한 현수종의 학승으로서 여러 경전에 대해 주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近釋』의 서두에 ‘明二楞庵釋通潤述’이라는 명자 표기를 감안하면 통윤이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近釋』 6권을 지은 시기는 『능가경』과 『능엄경』을 주석하던, 즉 설랑홍은雪浪洪



다음으로 복수로 수습하는 21가지 선정을 살펴보자. 이것은 크게 사마타 수습을 기준으로 한 일곱 가지, 삼마발제 수습을 기준으로 한 일곱 가지, 선나 수습을 기준으로 한 일곱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가운데 사마타 수습을 기준으로 한 일곱 가지는 다음과 같다.<sup>38)</sup>

- ④ 先修사마타 後修삼마발제: 우선적으로 지극한 적정[靜]을 붙잡고서 적정에 의한 지혜[靜慧]의 마음으로 모든 환(幻)인 것을 비추면서 문득 이 가운데 보살행을 일으키는 것.
- ⑤ 先修사마타 後修선나: 적정에 의한 지혜에 의해 지극히 적정한 상태를 현증하고서 문득 번뇌를 끊어 영원히 생사에서 벗어나는 것.
- ⑥ 先修사마타 中修삼마발제 後修선나: 적정에 의한 지혜에 의해 또 한 다시 환의 힘으로 갖가지 변화를 나타내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서 이후에 번뇌를 끊어 적멸에 들어가는 것.
- ⑦ 先修사마타 中修선나 後修삼마발제: 지극한 적정의 힘[靜力]에 의해 번뇌를 끊고서 이후에 보살의 청정한 묘행(妙行)을 일으켜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것.
- ⑧ 先修사마타 齊修삼마발제·선나: 지극한 적정의 힘에 의해 마음에서 번뇌를 끊으면서 중생을 제도하려고 세계를 건립하는 것.<sup>39)</sup>
- ⑨ 齊修사마타·삼마발제 後修선나: 지극한 적정의 힘으로 변화를 도와 일으키고 이후에 번뇌를 끊는 것.
- ⑩ 齊修사마타·선나 後修삼마발제: 지극한 적정의 힘으로써 적멸을 도와 주고서 이후에 작용을 일으켜 경계에서 변화하는 것.

이것들은 모두 사마타를 기준으로 수습된 것들로서, 사마타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삼마발제, 선나와 결합하여 그 전후에 한 개 혹은 두 개를 수습하는 것

은, 1548-1608)에게 사사받던 출가 초기인 강소성 태호(太湖) 철산(鐵山) 이릉암에서 머물던 때임을 알 수 있다.

38) 『圓覺經』(『大正藏』17, p.918b14-c3)

39) 『大正藏』17, p.918b27에는 “齊修三摩鉢提及修禪那”로 나타나지만 기화의 『說誼』에는 “齊修三摩鉢提禪那”로 되어 있다.(『韓佛全』 제7책, p.155下8-9)

[4가지]과 둘의 제수가 포함되고 그 전후에 다른 한 개를 결합한 형태[3가지]이다. 네 가지로 나타나는 형태에 다시 ④, ⑤와 같이 두 가지로 결합한 것과 ⑥, ⑦과 같이 세 가지로 결합한 것이 있다. 이를테면 ④처럼 보살이 우선적으로 지극한 적정을 붙잡고서 적정에 의한 지혜의 마음으로써 이후 삼마발제와 결합하여 모든 환인 것을 비추면서 보살행을 일으키는 방식, ⑤처럼 먼저 적정에 의한 지혜로써 지극히 적정한 상태를 현증한 보살이 나중에 선나와 결합하여 번뇌를 끊어 영원히 생사에서 벗어나는 방식, ⑥처럼 적정에 의한 지혜→환의 힘으로 중생 제도→번뇌의 단절과 적멸에 들어감으로 이어지는 방식, ⑦처럼 지극한 적정의 힘→번뇌의 단절→보살의 청정묘행을 일으켜 중생을 제도하는 것으로 수습되는 방식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살에게 체험된 사마타는 적정에 의한 지혜와 적정의 힘이라는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즉 사마타를 기준으로 수습할 경우 순서대로 뒤에 어떤 선정과 결합하는가에 따라 지혜나 힘으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마타에서 삼마발제로 이어지는 ④, ⑥에서는 적정에 의한 지혜가 직접 작용되고, 번뇌를 끊는 선나로 이어지는 ⑤, ⑦에서는 적정한 상태나 적정의 힘으로 직접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제수가 포함된 ⑧-⑩은 어떠한가. 위의 설명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은 제수의 ‘돕는다[資]’는 표현이다. 어떻게 돕는다는 것인가. 이에 대한 종밀의 주석을 살펴보면 ⑧은 한자 ‘品’의 형태와 같고, ⑨는 백택도[상상의 사자 그림] 가운데 있는 산정이 머리가 북모양처럼 생긴 양얼굴과 같으며, ⑩은 고요한 선정의 나무로 적멸한 중도의 열매를 맺는 후에 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sup>40)</sup>는 것이다. 이 비유적 묘사를 통해 제수의 뜻을 유추해 보면 이것은 두 선정에서 작의, 예를 들면 지극한 적정을 붙잡는 것[사마타]과 역상[삼마발제]을 가지런히 끌고 가면서 역상 때문에 생긴 산란은 적정을 붙잡는 것으로 돕고, 적정을 붙잡기 때문에 생긴 혼침은 역상하는 것으로 돕는다는 측면에서 가지

40) 宗密述, 『略疏註』卷下(『大正藏』39, p.561b4-23)

런히 서로 돕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만약 보살이 사마타의 작의를 놓아 버리고 삼마발제의 작의로 전환한다면 이것은 복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복수의 체계 안에 포함된 제수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전후에 다른 하나의 선정과 결합되며, 특히 사마타 수습을 기준으로 제수가 포함된 복수의 경우는 모든 수습에서 적정에 의한 지혜가 아닌 지극한 적정의 힘에 의거한다는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⑨, ⑩에서 사마타, 삼마발제의 제수는 지극한 적정의 힘으로써 변화를 도와[資] 일으키고, 사마타, 선나의 제수는 지극한 적정의 힘으로써 적멸을 도와준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삼마발제 수습을 기준으로 한 일곱 가지는 다음과 같다.<sup>41)</sup>

- ⑪ 先修삼마발제 後修사마타: 변화의 힘에 의해 갖가지에 수순하고서 지극한 적정을 취하는 것.
- ⑫ 先修삼마발제 後修선나: 변화의 힘에 의해 갖가지 경계에서 적멸(寂滅)을 취하는 것.
- ⑬ 先修삼마발제 中修사마타 後修선나: 변화의 힘에 의해 불사(佛事)를 짓고서 적정에 편안하게 머문 후<sup>42)</sup>, 번뇌를 끊는 것.
- ⑭ 先修삼마발제 中修선나 後修사마타: 변화의 힘에 의해 걸림없이 작용하고 번뇌를 끊고서 [그것에 의해] 지극한 적정(靜)에 안주하는 것.
- ⑮ 先修삼마발제 齊修사마타·선나: 변화의 힘에 의해 방편에 대해 작용하고서 지극한 적정과 적멸을 둘 다 수순하는 것.
- ⑯ 齊修삼마발제·사마타 後修선나: 변화의 힘에 의해 갖가지 작용을 일으킴과 지극한 적정을 도와주고서 이후에 번뇌를 끊는 것.
- ⑰ 齊修삼마발제·선나 後修사마타: 변화의 힘에 의해 적멸을 도와주고서 이후에 청정하고 지음이 없는 정려(靜慮)에 머무는 것.

41) 『圓覺經』(『大正藏』17, p.918c4-22)

42) 『大正藏』17, p.918c8에는 ‘安在’이지만 기화의 『說誼』에는 ‘安住’로 되어 있다.(『韓佛全』 제7책, p.155下19)

이것들은 모두 삼마발제를 기준으로 수습된 것들이며, 삼마발제의 특징인 변화의 힘을 써서 순서대로 사마타, 선나와 전후에 결합한 형태[⑪, ⑫], 순서대로 사마타, 선나 둘 다와 결합한 형태[⑬, ⑭], ⑮-⑰에서처럼 제수가 포함되고 그 전후에 다른 선정을 결합한 형태이다. 물론 변화의 힘은 붓다의 대비와 관련된 것이고 환을 일으켜 환을 제거하는 수습의 차원에서 나타난 것이다. 위의 설명에서 보듯이 순서대로 결합한 형태에서는 이 변화의 힘에 의해 보살은 ⑪에서처럼 갖가지에 수순하여 지극한 적정을 붙들거나 ⑫에서처럼 갖가지 경계에서 적멸을 붙들거나 ⑬에서처럼 불사를 짓고서 적정에 안주한 다음 번뇌를 끊거나 ⑭에서처럼 걸림없이 작용하고서 번뇌를 끊는 다음 지극한 적정에 안주하게 된다.

또한 이 힘은 제수가 포함된 나머지 복수 형태에서도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 변화의 힘에 의해 보살이 ⑮에서처럼 방편에 대해 작용하고서 나중에 사마타인 지극한 적정과 선나인 적멸을 제수하거나, ⑯에서처럼 먼저 변화의 힘으로 갖가지 작용을 일으키는 삼마발제와 지극한 적정인 사마타를 제수하고서 나중에 선나로서 번뇌를 끊거나 ⑰에서처럼 먼저 변화의 힘을 사용한 삼마발제와 적멸인 선나를 제수하고서 나중에 청정하고 지음이 없는 사마타에 머문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수가 포함된 복수에 대해 ⑮는 용수보살이 처음에 환술을 행함에 널리 사된 길로 변화하다가 이후에 진실의 수레를 수습하여 스스로 성인의 결과에 오르는 것과 같고, ⑯는 상나화수(商那和修)[우바국다(優波鞠多)의 스승]가 먼저 신력으로써 모습을 나투어 우바국다라는 제자의 오만한 마음을 항복시킨 이후에 선정에 들어 적멸로 돌아가는 것과 같으며, ⑰은 대통여래가 먼저 교화를 써서 만물을 이롭게 하고 나중에 스스로 적정에 돌아가는 것과 같다<sup>43)</sup>고 종밀은 주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삼마발제 수습을 기준으로 한 경우 그 두드러지는 특징은 변화의 힘이다. 또한 이것과 다른 선정이 결합된 지점은 갖가지 경계에 따름, 불사를 지음,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43) 宗密述, 『略疏註』卷下(『大正藏』39, p.561c14-28)

이들때면 보살이 이것과 다른 선정을 결합하는 계기가 대비로 중생을 제도하려 하거나 환의 무리를 개오하게 하려는 발원이나 공덕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선나 수습을 기준으로 한 일곱 가지는 다음과 같다.<sup>44)</sup>

- ⑱ 先修선나 後修사마타: 적멸의 힘에 의해 지극한 적정을 일으켜 청정에 머무는 것.
- ⑲ 先修선나 後修삼마발제: 적멸의 힘에 의해 작용을 일으켜 일체의 경계에서 적멸에 의한 작용[寂用]에 수순하는 것.
- ⑳ 先修선나 中修사마타 後修삼마발제: 적멸의 힘에 의해 갖가지 자성으로 정려에 안주하고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
- ㉑ 先修선나 中修삼마발제 後修사마타: 적멸의 힘에 의해 지음이 없는 자성으로 작용을 일으키고서 청정한 경계에서 정려로 돌아가는 것.
- ㉒ 先修선나 齊修사마타·삼마발제: 적멸의 힘에 의해 갖가지로 청정해져 정려에 머물면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
- ㉓ 齊修선나·사마타 後修삼마발제: 적멸의 힘에 의해 지극한 적정을 도와주고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
- ㉔ 齊修선나·삼마발제 後修사마타: 적멸의 힘에 의해 변화를 도와주고서 지극히 적정하고 청명한 경계에 대한 지혜를 일으키는 것.

이것들은 모두 선나를 기준으로 수습된 것들로서, 선나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사마타, 삼마발제와 결합하여 그 전후에 한 개 혹은 두 개를 수습하는 것과 둘의 제수가 포함되고 그 전후에 다른 한 개를 결합한 형태이다. 위에서 보듯이 이 일곱 가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은 적멸의 힘이다. 이러한 적멸의 힘은 모든 장애에 의거하지 않는 지각없는 밝음과 연관된 것이며 그 밝음으로 보살은 마치 그릇 속에 쇠북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장애이든 무장애이든 모든 경계를 초과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보살은 이 적멸의 힘으로 ⑱, ⑲에서처럼 지극한 적정을 일으켜 청정에 머물거나 작용을 일으켜 일체 경계

44) 『圓覺經』(『大正藏』17, pp.918c23-919a11)

에서 그것을 수순하기도 하고, ㉑, ㉒에서처럼 정려에 안주하고서 변화를 일으키거나 작용을 일으킨 다음 청정한 경계에서 정려로 돌아가기도 하며, ㉓-㉔에서처럼 정려의 머뭇과 변화의 일으킴을 제수하거나 적멸의 힘과 지극한 적정을 제수하고서 변화의 일으키거나 적멸의 힘과 변화를 제수하고서 지극히 적정한 지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㉓-㉔에서처럼 제수가 포함된 복수에 대해 종밀은 ㉒의 경우 다보불이 먼저 성도하여 진여의 체를 증득하고 난 후 탑 속에서 법화를 받기하는 것은 적정과 여환이 결립이 없는 것과 같고, ㉓의 경우 육만의 갠지스 강의 모래알만큼 많은 법화 보살이 아래로부터 바야흐로 나타난 것과 같으며, ㉔의 경우 이 보배는 만물상을 머금은 것이므로 마주한다면 곧 대응을 따라 변할 것이지만 그 대응도 공성으로 돌아갈 것이니, 마치 신령스런 마음에 대한 관찰이 성취되어 공덕과 작용을 머금은 것이지만 반연에 응해 환을 일으켜 적정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sup>45)</sup>고 주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나를 기준으로 한 수습에서 적멸의 힘은 붓다와 보살의 출현이 결립없이 자유자재하는 것으로, 인연과 대응에서 결립없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 수습에서 결합된 삼마발제는 대체로 작용이나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사마타는 18, 23에서처럼 지극한 적정과 결합되거나 20, 21, 22에서처럼 정려에 안주하는 것으로 제시되지만 24에서는 지극히 적정하고 청명한 경계에 대한 지혜를 일으킨다는, 즉 적정과 지혜를 모두 경험하는 것으로 서술되기도 한다.

25가지 선정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제시된 원수는 한 가지[25] 형태로 나타난다. 이 방식은 앞의 24가지와 달리, 원각에 대한 지혜에 의거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붓다의 설명은 “원각에 대한 지혜로써 원만하게 일체에 합하여 모든 성(性)과 상(相)에 대해 각성을 여의지 않는 것<sup>46)</sup>”으로 기술된다. 또한 이것을 수습하는 보살에 대해 세 자성으로 청정하게 수순하는 것을 원만하게 수습하는

45) 宗密述, 『略疏註』卷下一(『大正藏』39, p.562a18-b2)

46) 『圓覺經』(『大正藏』17, p.919a12-13), “若諸菩薩 以圓覺慧 圓合一切於諸性相 無離覺性”

자라고 명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세 자성’은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의 고유한 특성으로서 적정, 변화, 적멸이며, ‘원만하게 일체에 합하여’라는 것에서 그 일체는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 모두를 가리킨다. 이런 측면에서 원수는 세 가지 선정 모두로써 일체 성과 상에 대해 원각성을 여위지 않는 수습인 것이다.

이 원수에 대해 종밀은 “여의보주가 사방을 모두 비추는 것처럼 큰 지혜로 몰록 깨달은 것이고, 삼관이 나란히 함께 수습되는 것이다.<sup>47)</sup>”라고 주석하고 있다. 요컨대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를 순서대로 수습하는 것이나 체수가 포함된 복수와는 다르게 돈각의 측면이고 사방을 모두 비추는 여의주처럼 보살들에게 모든 측면에서 이 세 가지가 체험되는 수습이라는 것이다. 즉 이사무에 법계의 차원에서 수습되는 것이 복수이고, 사사무에법계의 차원에서 수습되는 것이 원수라 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이 원각에 대한 지혜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원수는 사마타의 적정의 힘[혹은 지혜], 삼마발제의 변화의 힘, 선나의 적멸의 힘에 의거한 복수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원각에 대한 지혜에 의거하기 때문에 큰 지혜로 몰록 깨닫는 돈수의 측면에서 셋을 원만하게 합할 수 있고, 그로부터 모든 성과 상에 대해 각성을 여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원각에 대한 지혜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 통운의 『원각경근석(圓覺經近釋)』에서는 “‘원각에 대한 지혜로 원만하게 일체에 합하여[以圓覺慧圓合一切]’란 사사무에를 드러낸 것으로서 성이든 상이든 적정이든 환이든 나아가 격든 굽히든 굽어보든 우러러보든 침 뱉든 욕설하든 탄식하든 웃든지 모두 위없는 묘각을 여의지 않는 것이며, [청정혜장의] 일체 장애가 곧 구경각이라 말한 것이 이것이다. 이것을 세 가지 관을 원만하게 수습한 것이라 하니, 원각의 청정한 자성에 수순하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다.<sup>48)</sup>”라고 주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통운이 인용한 ‘청정혜장’의 문맥은 다음과 같다.

47) 宗密述, 『略疏註』卷下(『大正藏』39, p.562b4-5)

48) 通潤述, 『大方廣圓覺수다라요의경근석』(『卍續藏』 제10책, p.533b11-15)

일체 장애가 곧바로 구경각이며, 정념을 지니거나 정념을 놓치거나 해탈  
 아님이 없으며, 교법을 성취하거나 교법을 부수거나 모두 열반이라 하  
 며, 지혜이든 어리석음이든 통틀어 반야가 되며, ... 중략... 불중성이 있는  
 자이든 불중성이 없는 자이든 가지런히 불도를 이루며, 일체 번뇌가 필  
 경 해탈이다. 법계 바다와 같은 지혜[法界海慧]로 모든 상(相)을 비추어 보  
 고나니, 오히려 허공과 같은지라. 이것을 여래가 각성에 수순하는 것이  
 라 한다.<sup>49)</sup>

이것은 여래가 자유자재하게 원각성에 수순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여  
 기에서 원각에 대한 지혜에 상응하는 단어는 ‘법계해혜(法界海慧)’, 즉 법계 바  
 다와 같은 지혜라고 할 수 있다. ‘법계 바다와 같은 지혜로 모든 상을 비추어 보  
 고나니 오히려 허공과 같다’는 기술이 ‘원만하게 일체에 합하여 모든 성과 상  
 에서 각성을 여의지 않는다’는 원수의 서술과 정확하게 그 취지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원각에 대한 지혜는 여래가 각성에 수순한다는 측면에서  
 청정혜이고 법계 바다와 같은 지혜인 것이다.

## V. 결론

보살의 25가지 선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하  
 나가 모두 그 자체만으로 온전히 보살과 말세중생이 원각에 수순하는 방편이  
 라는 사실이다. 일체 여래의 청정한 원각은 본디 수습할 것과 수습할 자가 없  
 지만 ‘각-미각’의 상관관계 아래, 미각에 의거하여 환의 힘으로 수습할 때 차별  
 화된 25가지 선정이기 때문이다. 즉 한 사람이 25가지 선정을 모두 순서대로  
 수습해야 원각에 온전히 수순한다는 뜻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25가지 선정 체  
 계에 의하면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라는 셋 가운데, 어떤 자는 그 중 하나만 수

49) 『圓覺經』(『大正藏』17, p.917b2-8)



습하고, 어떤 자는 둘만 수습하고, 어떤 자는 셋 모두를 수습하며, 어떤 자는 순서대로 수습하고, 어떤 자는 그 중 둘은 가지런히 도와 함께 수습한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그 전후에 수습하고, 어떤 자는 순서를 뛰어 넘어 동시에 몰록 수습할 수 있다.

‘변음장’ 말미의 계송에서 붓다는 시방의 모든 여래와 삼세 수행자가 이 25가지 정륜에 의거하여 모두 깨달음을 성취했다<sup>50)</sup>고 단언한다. 그렇다면 수행자는 이것들 중에 어떤 것이 자신의 근기에 맞는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 조항이 있다. 이에 대한 언급은 ‘변음장’ 계송에 나타나는데, “몰록 깨달은 사람과 이 수레바퀴에 따르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sup>51)</sup>는 것이다. 이 두 부류를 제외한 나머지 보살과 말세중생들이 자신의 근기에 맞는 선정법을 선택하려면 먼저 어떤 특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것은 “마땅히 범행, 적정, 사유를 지니고 간절하게 참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참회는 21일 동안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후 수행자가 지극한 마음으로 매듭[結]에 각각 해당되는 숫자 혹은 글자를 표기한 25가지 선정을 안치해둔 곳으로 가서 거기에 손을 넣어 그 중 하나를 선택하면 그 매듭의 표기에 의해 문득 자신이 돈(頓)인지, 점(漸)인지<sup>52)</sup>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선택한 다음 그에게 한 생각이라도 의심이나 후회가 일어난다면 곧바로 그 매듭에 의거한 선정을 수습하더라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문도 뒤따르고 있다.<sup>53)</sup> 즉 나무 간자를 던져 과거 업의 선악을 관찰한 다음, 악으로 관찰될 경우 일정기간 참회 의례를 한 후 수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찰법회의 형식을 여기에서 차용한 것이다. 한마디로 돈점의 모든 것을 붓다의 대비력에 맡긴다는 발상인 것이다.<sup>54)</sup> 통운은 이에 대해 원수만 돈수이고 나머지는 점수라고 주석하고<sup>55)</sup>, 기

50) 『圓覺經』(『大正藏』17, p.919a27-29)

51) 『圓覺經』(『大正藏』17, p.919a26)

52) 돈점에 대한 언급은 이 곳 이외에 ‘미륵장’에서도 서술된다.(『大正藏』17, p.916c1-3) 하지만 ‘미륵장’의 문맥은 선지식의 인지법행에 의거한 돈점이고, ‘변음장’은 참회의례를 거친 이후 스스로 선택하는 돈점이기 때문에 분명 차이가 있다.

53) 『圓覺經』(『大正藏』17, p.919a15-18)

54) 『圓覺經』(『大正藏』17, p.919a29). 여기서의 지면 관계상 『원각경』 나타난 돈점에 대한 논의는 다루

화는 붓다의 비밀스러운 감응을 빌려 표기하고, 그 감응에 의거하여 붙잡는 것이므로 표기 중에 돈이든 점이든 모두 붓다의 비밀스러운 감응이 나타난 것<sup>56)</sup>이라고 주석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행자의 돈점이 의례에 입각하고 붓다의 대비력에 의존한 비밀스러운 감응으로 결정된다는 부분은 요즘 학자들에게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I장에서 살펴본 한국에서 『원각경』의 유통 현황을 고려하고 재차 『신편제종교장총록』에 있는 이 텍스트의 목록을 재고하면 『원각경』 관련 의례를 엿볼 수 있는 텍스트 비중이 높다는 사실이 발견된다. 심지어 종밀의 저술도 『도량수증의(道場修證儀)<sup>57)</sup>』, 『예참략본(禮懺略本)<sup>58)</sup>』, 『도량육시례(道場六時禮)』라는 세 개가 있다. 즉 『원각경』은 고려 전기부터 의례와 관련된 체계 아래 유통된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능엄다라니’와 연관된 구체적 의례를 포함하고 있는 『수능엄경』과 『원각경』의 내용이 유사하다는 주장<sup>59)</sup>도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

---

지 못했다. 이에 관한 논의는 조윤희, 「『원각경』은 ‘禪經’인가? 『원각경』과 중국선종의 관계에 대한 一考察」, 『보조사상』 15(서울: 보조사상연구회, 2001), pp.193-216을 참고하라.

55) 通潤述,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근석』(『근續藏』 제10책, p.533c9-15)

56) 釋己和解,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說誼』 卷中(『韓佛全』 제7책, p.157中5-8)

57) 『원각경도량수증의』에 나타난 의례적 성격에 대해서는 신규탁, 「대한불교조계종현행 ‘상단칠정례’ 고찰」, 『정도학연구』 제16집(서울: 한국정도학회, 2011), pp.74-76을 참조하라.

58) 이에 대한 연구는 라정숙, 「종밀의 『원각례참략본』 분석」, 『불교연구』 제39집(서울: 한국불교연구회, 2013), pp.181-209를 참조하라.

59) 이지관, 『韓國佛教所依經典研究』(합천: 해인사, 1973(c1969), pp.265-266.

## 참고문헌

### 1. 원전 자료

- DN. *Dīghanikāya*, ed. PTS.
- MN. *Majjhimanikāya*, ed. PTS.
- 『大智度論』(『大正藏』 25)
-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大正藏』 17)
- 釋己和,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說誼』(『韓佛全』 제7책)
- 義天, 『新編諸宗教藏總錄』 卷一(『韓佛全』 제4책)  
『大覺國師文集』(『韓佛全』 제4책)
- 宗密,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略疏註』(『大正藏』 39)
- 知訥, 『勸修定慧結社文』(『韓佛全』 제4책)  
『牧牛子修心訣』(『韓佛全』 제4책)  
『真心直說』(『韓佛全』 제4책)  
『看話決疑論』(『韓佛全』 제4책)  
『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韓佛全』 제4책)
- 淸學, 『詠月大師文集』(『韓佛全』 제8책)
- 通潤,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近釋』(『卍續藏』 제10책)

### 2. 2차 자료

- 이지관, 『韓國佛教所依經典研究』, 합천: 해인사, 1973(c1969).
- 정병삼, 『정선 화엄 II』,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통사상서 간행위원회, 2009.
- 강성용, 「조선의 경험과 회상 그리고 서술: 분다 일대기에서 조선에 대한 서술이 갖는 특징과 그 의미들」, 『인도철학』 23, 서울: 인도철학회, 2007, pp.117-146.
- 김미경·강순애, 「원각경 판본의 계통과 서지적 특징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제46집, 수원, 한국서지학회, 2010, pp. 329-370.
- 김홍미, 「『원각경』의 3가지 보살의 선정」, 『불교학보』 72, 서울: 불교문화연구원, 2015, pp.89-114.

- 라정숙, 「宗密의 『圓覺禮懺略本』 분석」, 『불교연구』 제39집, 서울: 한국불교연구원, 2013, pp.181-209.
- 신규탁, 「대한불교조계종현행 ‘상단칠정례’ 고찰」, 『정토학연구』 제16집, 서울: 한국정토학회, 2011, pp.53-84.
- 조운호, 「『원각경』은 ‘禪經’인가? 『원각경』과 중국선종의 관계에 대한 一考察」, 『보조사상』 15, 서울: 보조사상연구회, 2001, pp.193-216.
- \_\_\_\_\_, 「종밀의 『원각경』 해석에 보이는 제 사상의 수용」, 『범한철학』 45, 광주: 범한철학회, 2007, pp.77-98.
- 종범, 「강원교육에 끼친 보조사상」, 『보조사상』 제3집, 서울: 보조사상연구원, 1989, pp.73-107.
- 허홍식, 「혜거국사의 생애와 행적」, 『한국사연구』 52, 서울: 한국사연구회, 1986, pp.29-45.

## On the 25 Bodhisattva's meditations in the *Sutra of Perfect Enlightenment (Yuanjue jing)*

Kim, Hong-mi (Ven. Won-gwa)  
Former lecturer  
Dongguk University

*The Sutra of Perfect Enlightenment (Yuanjue jing, 圓覺經)* is the representative text of Korean Buddhism, which has been lectured or published for more than 1,000 years from the Goryeo Dynasty until recently in Korea.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paper analyzes the 25 Bodhisattva's meditations systematized on the basis of the most prominent practice systems, especially śamatha, samāpatti and dhyāna.

Among 12 chapters in total, Chapters 7, 8, and 11 are directly related to the 25 Bodhisattva's meditations. The Chapters 7 and 11 focus on how the novice first approaches śamatha, samāpatti and dhyāna, how to decorate the Buddha-land and how to achieve enlightenment, while the Chapter 8 describes all the meditations experienced by Bodhisattvas in actual practice. When Bodhisattvas cultivate śamatha, samāpatti and dhyāna, the 25 meditations are the sum of doing alone (3), of doing perfection (1), and of doing two or more together (21). The basis upon which the meditations are cultivated is the power of illusion founded on the unenlightening state, which state is dependent on enlightenment again.

The 25 meditations experienced by the Bodhisattva in actual practice differ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mental concentration and tranquility. Basically, śamatha appears as the efficacy of calming or as calm wisdom, samāpatti as the efficacy of transformation or the great compassion of the Buddha, and dhyāna as the efficacy of quiescence. However, Bodhisattvas who perfectly cultivate three

meditations simultaneously or together use wisdom of perfect enlightenment.

Keywords

unenlightening state, wheel of meditation, the 25 Bodhisattva's meditation, śamatha, samāpatti, dhyāna, according with entire enlightenment

2018년 02월 19일 투고

2018년 03월 15일 심사완료

2018년 03월 21일 게재확정